

‘書院스тей’를 아시나요?

월봉·필암서원에서 ‘1박 2일’

‘서원(書院)스тей(stay)’를 아시나요.

불교의 템플스테이나 천주교의 피정(避靜·Retreat)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있는 주요 서원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 유교문화를 맛보는 서원 스테이가 열릴 예정이다.

서원스тей 프로그램은 성균관에서 파견한 강사나 훈장으로 부터 서원의 역사와 유학자들의 생애를 설명하고, 절하는 법 등 예절교육과 과거 서원에서 유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체험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이 지역에서는 광산구 입곡동 월봉서원과 장성 필암서원에서 체험할 수 있다.

조선 중기 대유학자 고봉 기대승을 기리는 월봉서원(月峯書院)은 오는 24일부터 ‘철학스тей’라는 이름으로 서원스тей를 연다.

2010 문화재활용사업이기도 한 이번 철학스тей는 지친 심신의 활력을 찾고 전통 유교문화를 접할 수



지난해 월봉서원 철학스тей 참가자들이 서원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교육문화공동체 '결' 제공>

성균관 훈장이 유학 강의·예절교육

24일부터 시작...전국 주요 서원서도

있는 좋은 기회로 오는 10월까지 매일 낮새 주 주말에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고봉선생이 뛰우는 미래로의 초

대’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철학스тей는 소나무 숲 걷기와 다례 체험, 한국화 그리기, 달빛 전래놀이, 사단절정과 우리 삶 이야기, 고봉과

퇴계의 우정을 생각하며 편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회당 참가 가능인원은 30명이며 희망자는 월봉서원 홈페이지(www.wolbong.org)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관 단체인 교육문화공동체 ‘결’(062-432-1318)로 문의하면 된다.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는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도 여름방학을 맞아 서원스тей를 준비하고 있다. 17일부터 성균관 한림원 수강생 20여 명이 서원을 찾아 4박5일 일정으로 강론을 펼친다. 이들은 필암서원에 머물면서 강의를 들으며 전통 유교문화를 익힐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원스тей 홈페이지(www.sewonstay.com)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소수서원, 설봉서원, 돈암서원 등 전국 주요 서원에 서원스те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직동물원 추억을 느끼세요”

옛 사직동물원 일대 아트주 콘텐츠 파크 오늘 사업 간담회

광주 사직공원 동물원은 많은 이들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우치동물원이 생긴 후 이곳은 쇠락해 가는 공간으로 전락했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사직공원 일대는 황토와 목재로 포장된 보행로와 3천여 그루의 꽃·나무가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변신중이다. 이제 여기에 문화적 색채가 더해진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디자인 그룹 바우하우스와 함께 문화예술융합공간 ‘아트주 콘텐츠 파크(ART ZOO contents park)’를 진행중이다.

사직동물원 일대를 활용하는 ‘아트주’ 프로젝트는 동물을 주제로 만지고 두드리고 손 댈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된 공간이자 동물 테마의 예술작품 테마공원과 체험 프로그램의 콘텐츠가 포함된 복합 브랜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지난해(제)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09문화콘텐츠 특성화 브랜드 상품 발굴 지원 사업’에 선정돼 모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자체 부담금 7000만원 등 모두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2년 완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기본 사업 계획에 따르면 ‘아트주’ 공간은 ‘희로애락’을 주제로 구성된 4개의 공간이다. ‘희(喜·기쁨의 공간)’는 추억의 동물원과 각종 동물을 소재로 한 체험요소가 자리잡은 공간이며 ‘로(怒·노여움의 공간)’는 멸종동물 등을 소재로 환경 메시지를 전하는 작

품으로 구성된다. 또 ‘애(愛·사랑의 공간)’는 아트주의 식물원 구역으로 자신의 야생화를 심는 등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밖에 ‘락(樂·즐거움의 공간)’은 각종 동물 모양의 시설물을 직접 만지고 두드리 볼 수 있는 놀이터와 행사가 들어서는 공간이다.

재단측은 이번 사업과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13일 오후 2시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옛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경현(아트주 프로젝트 팀원·기획의 보실장)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한다. 또 박경현(도시재생사업단 선임연구원), 주홍(무돌아트컴퍼니 작가), 박시훈(무등시장 프로젝트 팀장)씨 등이 제언을 할 예정이다.

문의 062-234-27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템플스테이’ 계절이 왔어요

조용한 산사(山寺)에서 일상에 찌든 때를 벗고 재충전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의 계절이 다가왔다.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사찰들은 1년 내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지만 올 여름에는 평소와는 다른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참가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사찰의 전통적인 식사방법인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참선과 108배, 스님과 대화를 하는 순서가 공통으로 들어 있고 사찰별로 주변경관을 찾거나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해남 대흥사는 주말 차 문화 체험과 두류산 산행이 포함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해남의 미항사는 8월14일부터 참선수행 템플스테이인 7박8일짜리 ‘참사람의 향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장성 백양사에서는 숲 치유 명상 템플수련회와 전문심리치료가



장성 백양사 참사람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사찰의 전통적인 식사방법인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장성 백양사 제공>

전남 사찰들 여름 특별 프로그램 마련

지도하는 명상심리치료국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말마다 상시로 열리는 체험형 템플스테이(1박2일)와 평일 문을 여는 휴식

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구례 화엄사는 화엄사~천은사~도림사를 돌아보는 ‘3사3색 템플스테이’를 7~8월 두 달간 3차례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연일 밥과 대통밥 만들기(보성 대원사), 연차, 야생차 채취(구례 대원사) 등을 통해 특색있는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있다.

청소년이나 초등학교를 위한 맞춤형 템플스테이도 열린다. 사찰에서 예절교육과 기본적인 불교교육을 받고 한문이나 영어공부도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40여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 일정을 준비했으며 이 지역에서는 보성 대원사, 해남 대흥사, 미항사, 순천 송광사 등이 운영한다.

2박3일~7박8일 등 일정이 다양하며 웬만한 청소년 캠프 못지 않게 알찬 프로그램들이다.

자세한 정보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http://www.templestay.com)를 참조하면 찾을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암 아천미술관 ‘내 고슴결을 찾아서’

31일까지 8주년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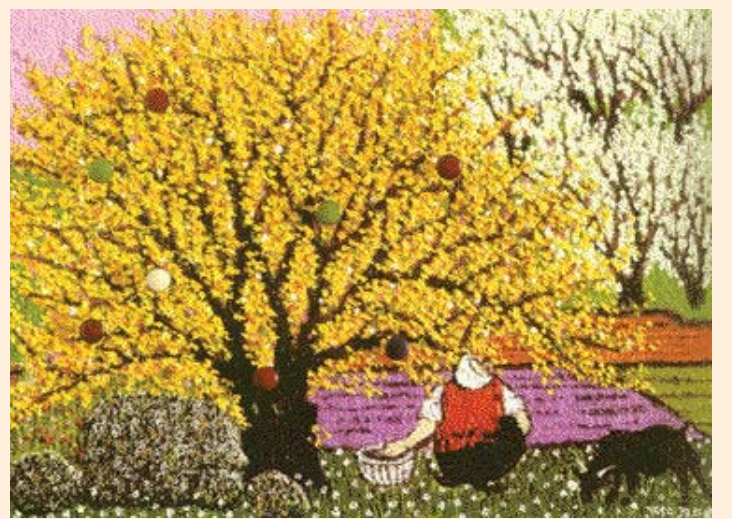
박태후 등 90여명 참여

영암에 있는 아천미술관(이사장 유수택)이 개관 8주년을 맞아 특별기획한 ‘내 고슴결을 찾아서’를 오는 31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회는 고향을 주제로 이 지역에서 출생한 국내 작가들과 세계 각지에서 온 다문화 가족들을 함께 초청하는 특별행사로 올해로 일곱 번째다.

참여작가는 강경숙·김대원·김종·박태후·신호재·이신자·임근재·채종기·최재영·최재창·허진씨 등이다.

이번 전시는 고향 이야기를 한 자리에 모은 테마전으로 90여명의 작가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고향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정용규 작 ‘고향’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삶의 활력이 되고 위안을 주는 고향을 만날 수 있으며, 분주한 생활 속 잊고 사는 고향에 대한 기억들과 따뜻한 추억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천미술관은 류수택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현 고려 대표이

사)이 5대째 살아온 집에 건립한 미술관으로 기존의 가족유물관을 새로 증축하고 각종 유품 및 유물과 미술품을 전시·보관하고 있다. 미술관 야외에는 야외음악당이 있으며 10여 점의 조각품도 전시돼 있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한국인 눈에 비친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일본서 연구보고회

일제강점기 시대의 문학과 인물에 대해 주로 연구해온 한국인 교수가 일본에서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작가 나쓰메 소세키에 대한 연구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는 오는 21

일 일본 도쿄 중앙대에서 일본 작가 나쓰메 소세키와 근대 조선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회를 갖는다.

중앙대 사회과학연구소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연구회는 한·일 강제합 100주년을 맞는 해에, 한국인이 일



본 근대문학의 거장을 한국의 시점에서 논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교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인의 눈에 비친

나쓰메 소세키와 그의 작품세계를 재해석하고 소세키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김교수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도련님’ ‘명암’ 등으로 한국에 알려진 소세키를 연구하면서 소세키의 문학과 조선과의 관련 양상을 정리해볼 필요성을 느꼈다”며 “일본의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일본 외부에서 바라본 소세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수는 ‘소세키와 조선’을 일본에서 출간 화제가 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400번째 ‘사랑의 향연’

20일 효령동 노인타운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의 향연을 펼쳐온 (사)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단장 나덕주)이 오는 20일 오후 1시 광주시 북구 효령동 노인복지타

운에서 400번째 공연을 펼친다.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한 이날 공연에는 김성원씨가 관소리 단가를 부르며 허미라씨는 민요를, 정혜숙씨 등은 고전무용을 선사한다. 또 하리발리팀이 발리댄스를,

김영록씨가 변검미술을 펼쳐보인다.

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은 2005년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이래 지역을 순회하며 각종 공연과 영화상영 등 문화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다음 공연은 내달 13일 5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열린다. 문의 062-434-506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당첨 기회입니다. ★간편합니다. ★가치가 높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1-1
총판점 (062) 227-9970

송파점 (061) 752-9940
역포점 (061) 282-9300
학산점 (063) 651-2422